

비구니 스님도 똑같이 승납 20년이상 선거권

총무원장 선거 관련 종헌·종법 개정안 입법예고

비구·비구니 스님이 승납 20년 이상이면 똑같이 총무원장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21일 총무원장 선거인단의 구성을 법제 대덕(해덕), 승납 20년 이상의 스님으로 규정하는 '종헌 및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종헌 개정안은 제52조를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중앙종회의원과 각 교구총회에서 선출한 10인의 선거인(본사 주지 포함)으로 구성한다"를 "법제 대덕(해덕), 승납 20세 이상의 승려로 구성한다"고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인단이 6100여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는 제34대 집행부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을 중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4월 열린 공청회에서 집행부 안으로 제시된 준 직선제(3795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현재 종단 스님 1만 여명 가운데 승납 20년 이상 대덕 법제 이상 비구 스님은 3036명, 해덕 이상

비구니 스님은 3115명 등 6151명이다. 승납 20년 이상 스님은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소임을 맡을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선거인단 선출 선거가 없어지는 만큼 향후 총무원장 선거운동에도

6월 임시 종회 앞두고
원로회의, 종회의장단
교구본사주지 비구니회
의견조율 간담회 계획

큰 변화가 예상된다.

총무원 기획실 관계자는 "종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만큼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차별 없이 선거에 참여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6월 중앙종회 임시회를 앞두고 원로회의, 중

양종회 의장단, 교구본사 주지, 비구니회 스님들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헌을 개정하면서 선거 관련 종법도 일부 개정했다. 말사 주지의 선거운동을 가로막아 비현실적인 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선거법 41조 1항의 선거운동 제한을 받는 교구본사 교역직에서 말사 주지를 제외했다. 또 선거법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49조를 손대 "선거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호법부가 징계심판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적의원 2/3이상의 결의로 호계원에 징계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바꿨다. 기존 법은 호법부만 징계청구 할 수 있다.

총무원은 21일부터 오는 6월9일까지 종단 우편과 이메일(ykkim@buddhism.or.kr), 팩스(02-733-8285)를 통해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후 6월25일 개원하는 중앙종회 제198회 임시회 본회의 안건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너와 나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

지난 22일 진도 팽목항에는 노란리본과 등이 바람에 흐느끼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라 손짓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스님들이 이곳에서 고히(苦海)를 벗어나 편히 잠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관련기사 3면

진도=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청년출가학교, 희망의 등불 켜다”

6월28일~7월6일 해남 미황사에서 진행

삶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방황하는 청춘들을 위한 특별한 법식인 청년출가학교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승스님)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스님)은 오는 6월28일부터 7월6일까지 8박9일간 해남 미황사에서 청년출가학교를 개최한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20대들과 희망을 얘기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스님이 '마음살림, 희망나눔'을 주제로 강의하며 <철학콘서트>의 저자 황광우 작가와 함돈균 문학평론가, 박웅현 광고홍보전문가 등이 삶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

눈다. 또 금강스님으로부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염불을, 이중만 풍경소리 대표에게 찬불가를 배우는 시간도 있다.

참가자들로부터 각광받는 개별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 법사를 확충했다. 교장 법인스님을 비롯해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 울산 해남사 주지 만조스님, 교육원 교육국장 가섭스님, 종단 교육아사리 원영스님, 중앙승가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재마스님이 지도법사로 참여해 청년들과 마음을 나눈다.

이밖에도 달마산 산행, 마당길 걷기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

간도 별도로 진행된다.

교육국장 가섭스님은 "40여명의 청년들과 8박9일을 함께 하며 청년들에게 자신과 타인, 나아가 사회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더 나아가 청년출가학교는 출가를 자신의 삶으로 상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가자 접수기간은 6월2일부터 20일까지며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입방지원서를 내려 받아 우편 및 이메일(redpine@buddhism.or.kr)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5만원이다.

어현경 기자 eonaldo@bulgyo.com

세월호 참사현장 자비행
자원봉사 연수교육 인증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 팽목항 임시법당에서는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는 등 참사현장에서 스님들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교육원이 세월호 참사현장에서 진행되는 스님들의 자비행 실천을 승려연수교육 자원봉사과정으로 인정하기로 해 주목된다.

자원봉사활동은 진도 사고수습본부 일대 및 팽목항에서 1박2일 총 12시간 이상 희생자를 위한 기도와 가족들에 대한 상담, 급식 등의 활동을 말하며, 인증기간은 4월16일부터 구조 및 수색작업 종료시까지이다. 인증을 신청할 스님은 종단 재난구호봉사본부 본부장 법일스님에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사회복지재단에서 명단을 취합해 교육원에 제출하면, 심사 후 연수점수가 부여된다.

교육원 관계자는 "자비실천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것은 승가의 본연이지만, 최근 현장을 찾는 자원봉사자의 수가 급감하는 와중에 하안거 결계제 시작되면서 스님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게 사실"이라며 "세월호 구조활동과 수색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스님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현경 기자

‘능인불교 대학원대학교’ 9월 개교

도심포교 대명사 지광스님

단일 사찰 획기적 불사...

노하우 전수 인재양성 나서

능인불교대학을 통해 30여만명의 불자를 배출한 대표적인 도심포교당인 서울 능인선원이 '능인불교 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해 불교지도자 양성에 나선다. 능인선원장 지광스님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화성시에 17만평 규모로 마련한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가 오는 9월1일 2년제 석사학위과정으로 개강한다"면서 "전법과 명상, 상담 능력을 갖춘 새로운 불교인재를 양성하고 연구하는데 앞장

서는 대학으로 육성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혜, 자비, 실천'을 건학이념으로 한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는 교육부 인가 전문대학원으로서 불교학과와 응용불교학과 석사과정으로 출발한다. 2년 뒤에는 박사과정도 개설하는 등 학교 규모를 점진적으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동국대와 금강대, 위덕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등 기존의 불교종립대학이 종단이나 학교법인에서 설립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도심포교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한국불교현대사에 새로운 역사를 쓴 능인선원장 지광스님

이 총장 소임을 맡게 됐으며 내년에 기숙사가 완공되면 학생들과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며 스님이 그동안 쌓은 전법 노하우를 모두 전수해 포교 전법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지광스님은 "능인선원의 포교노하우를 전부 전수함으로써 저를 능가할 불교인재를 키우는 게 나의 마지막 소임"이라며 "제가 포교현장에서 느꼈던 모든 것 뿐만 아니라 능인선원의 모든 인적 물적 자산을 투입해 학교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는 오는 6월7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하며 27일 오전11시 교내 백만불전에서 1차 봉안법회를 봉행하며, 학교 설립회도 갖는다. >관련기사 4면

박인탁 기자 parkintak@bulgyo.com

KCRP 이웃종교인 화합주간 개막 2면

남해 보리암 인재양성 장학금 수여 5면

포교원 '청소년 명상프로그램'

전국서 16차례 진행 10면



호스피스 전문병원

정토마을 자재병원 공 개원 11면

봉은사 일요법회

신심나는 혜국스님 법문 12면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보련기획

특가행사
진행중

정품 LED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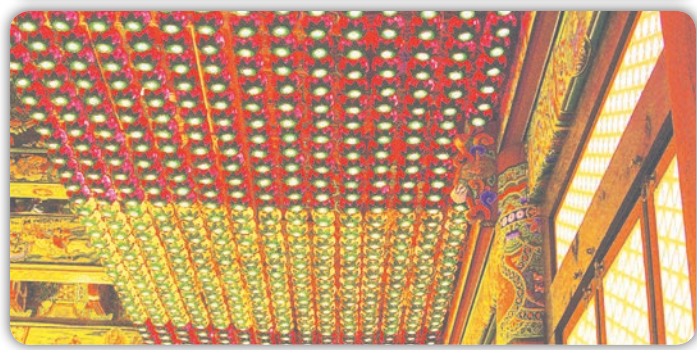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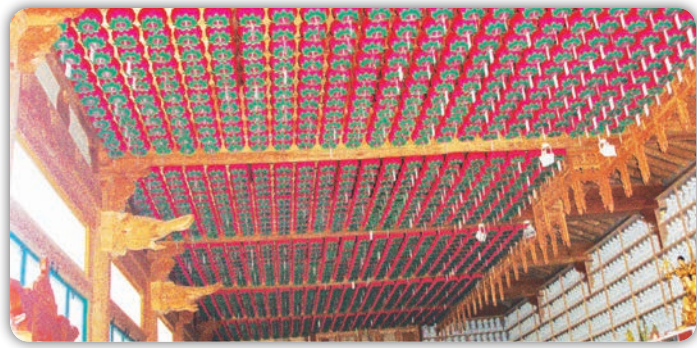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인 등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팔각주름등



연꽃만월등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바 림 등



공 단 등



연 화 연 등



자 비 등



팔 각 접 등



차 겉 이



H · 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